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활력

4개기업 투자협약 체결… 홀로그램 융복합 신시장 개척

익산지역에 홀로그램 기업 투자유치 행렬이 이어지면서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활발히 조성 중이다.

익산시는 16일 익산시청에서 (주)스완전자 등 4개 기업대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그램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참석한 기업은 (주)스완전자(대표 이종혁), 오말(대표 이주), (주)자비스(대표 이승준), (주)텐스퀘어(대표 최영호)이다. 이들은 익산시로 지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해 60여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스완전자는 투명·미러 디스플레이 개발로 식품, 피규어, 의류, K-POP 콘텐츠 등 입체물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오말은 특정 지역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스마트축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주)자비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HUD, 초정밀 위치측위제어기 등 개발 업체이며 (주)텐스퀘어는 홀로그램 장비 개발 및 제작을 통해 전시관, 홍보관 등 전시 서비스업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홀로그램 기술 제품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업영역 확대를 돕는다.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홀로그램,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포괄해 실감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HUD 서비스·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등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실감콘텐츠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조성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이 줄이어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홀로그램 메카도시 익산에 둥지를 틀게 된 4개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기업과 시가 상생 발전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홀로그램 도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투기목적 농지거래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

익산시, 21개 위원회 18일부터 운영…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인내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또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방역관리 연장

군산시가 선유도 해수욕장 폐장일인 16일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방역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선유도 해수욕장은 지난 7월 8일 개장했으며 그동안 약7만3천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으며 이는 지난해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시는 폐장 이후에도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 및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자체 근무계획을 편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폐장 후 최소한의 관리 차원에서 다중 이용시설(화장실) 소독과 해수욕장 내 입수객 통제 및 청결관리 등 안전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및 군산소방서와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선유도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수욕장 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 여름밤 백제 왕궁을 거닐며 맛보는 달빛기행 '익산문화재 야행'이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야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백제왕궁 낭만여행' 성료

'익산문화재 야행' 대표 야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한 여름밤 백제 왕궁을 거닐며 맛보는 달빛기행 '익산문화재 야행'이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야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22 익산문화재 야행'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탑리마을 일원에서 2만4천여 관람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익산 문화재 야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대부분 프로그램이 조기에 접수 완료되며 그 인기를 과시했다.

이번 야행은 관광객들이 '왕궁에 나타난 백제무왕'을 주제로 달빛을 따라 왕궁 일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내 시민단체들이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백제왕궁 곳곳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몽중화 미디어파사드, 최신 기술로 백제왕궁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백제왕궁 ICT 박물관 프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국보인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모양 등 만들기, 문화재 야행을 위해 양성한 해설사 왕궁이의 해설 투어△백제왕궁 후원 산책, 세계유산 유적지에 누워서 보는 이색 체험 △야(夜)심한 밤 '별멍' 등 다양한 이색체험이 진행되며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익산 문화재 야행에서는 백제왕궁박물관을 야간 개방하여 다양한 체험과 박물관 옥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장엄한 백제왕궁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익산시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생명 생태계 확장과 그린바이오 농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완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기반으로 농생명 생태계 확장과 그린바이오 혁신파크로 발전 방향 등 익산시 혁신성장의 신동력 추진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내 대학의 교수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농생명 분야를 이끌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및 기술 로드맵, 익산시 그린바이오 연계방안에 대한 발제와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내 관련 분야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대학 및 기관 간 협력과 지자체 사업 등에 관한 기관별 지원방안 등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익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 추진

군산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12일부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인 지난 7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170개소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야간 도로 조명 취약지역 가로등 정비

군산시는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및 사고위험 취약지역 도로 조명에 대한 가로(보안)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 수요조사 및 밝기 저하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식도 원룸 주택가 지역, 호원대 인근 및 남산로 일원 등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가로(보안)등 노후 등 기구 교체 및 보강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취약지역 내 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간 통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 조명 정비를 통해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